



담양 관방제림의 더위 탈출

8월의 시작이자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된 1일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관방제림을 찾은 피서객들이 나무 숲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담양=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성화대 설립자 65억원 횡령

검찰에 고발...시정 안되면 학교 폐쇄

‘교수월급 13만원 대학’ 교육부 감사 결과

교과부 감사결과 강진의 전문대학인 성화대학이 교수 월급으로 13만원을 지급하는 등 ‘재정파탄’ 상태가 된 것은 재단 설립자의 교비 횡령이 주된 원인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6면)

부실한 학사관리도 적발돼 법정 출석일수 미달에도 학점을 받은 학생 7882명과 시간제 등록생 5000여명 등 1만3000여명의 학점이, 일부 졸업생은 학위가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월급 파문 이후 성화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립학원을 특별감사한 결과 교비 65억원 횡령과 7억원 부당집행, 부적절한 교직원 임면 법인 운영과 학사관리 전반에서 불법과 비리가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설립자인 이모 전 총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법인측이 교과부의 이행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씨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씨의 교비 횡령액 65억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감사 결과 이씨는 2005년부터 교비 52억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사 4곳과 패션업체 1곳 등 5개 회사로 빼돌리는 등 모두 65억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이로 인해 교직원 급여일인 지난 6월 17일 현재 대학의 운영자금 잔고가 9400만원에 불과해 교직원 130여명의 급여 5억원을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설사 공사비·관리비로 부당 지급(6억원), 이씨의 월급 지급(1억원) 등으로 교비 7억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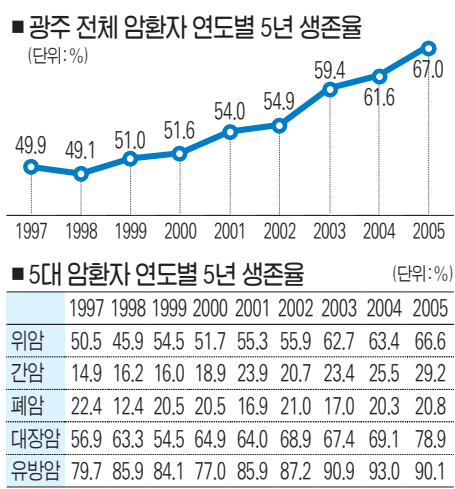
이와 함께 3년(2009년~올 1학기) 동안 법정 출석일수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등 학사 운영과정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교과부는 수업일수 미달학생 1만3000명(학생 7882명·시간제등록생 5000여명)의 학점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취득 학점이 모자라 졸업 요건이 안될 경우 졸업생의 학위도 취소하도록 했다.

성화대는 교과부 처분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10월 1일까지 이행을 촉구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임원 승인 취소,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암환자 생존율 크게 상승

5년 이상 생존율 1997년 49% → 2005년 67%로

평균 60%...유럽·일보보다 높아
화순전남대병원 8년간 분석



가 배 이상 뛰었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97년 49.9%, 1999년 51.0%, 2001년 54%, 2003년 59.4%, 2005년 67.0% 등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1997년~2005년 평균 5년 생존율도 59.9%에 달해 유럽(51.9%)이나 일본(54.3%)보다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암환자 5년 생존율은 1999년 45.7%, 2002년 47.7%, 2003년 51.0%, 2004년 54.1%, 2005년 56.6% 등으로 연평균 1.8%씩 오르고 있다. 이 같이 전남지역 생존율이 광주지역에 비해 10% 가량 낮은 것은 높은 고령화비율에 따라 암 환자 연령도 높은 탓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갑상선암의 경우 5년 생존율(2005년 기준)은 100%이며 위암 66.6%, 대장암 78.9% 등으로 나타났다. 화순전남대병원 전남지역암센터 정익주 소장은 “암의 조기진단과 치료기술의 향상, 환자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생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암전진 기관으로서 진료의 질 향상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홍준표 호남인사 배제 계속면 집단사퇴”

한나라 호남 당협위원장들 지구당 정상화도 촉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서 호남출신 인사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 호남출신 당협위원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도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호남출신 배제 구상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한나라당 광주·전남·전북 당협위원장들은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대표의 지명직 최고

위원 호남권 배제 구상은 노골적 호남 무시”라며 “이는 호남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호남지역 당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누구보다도 소통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의 대표가 특정 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며 “홍 대표는 호남지역 활동인사 최고위원 임명과 앞으로 지역차별과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호

남당원과 지역민들에게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홍대표와 당 지도부는 사고지구당으로 지정한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당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당원들이 자율적 선거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당협위원장 등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한나라당의 호남 소외론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경필 최고위원도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지역 최고위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 통합과 동서 간 갈등해소를 추구해온 한나라당의 원칙과 역사상에 맞지 않다”며 “홍 대표의 호남출신 인사를 최고위원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최고위원은 “호남출신 인사들을 최고위원에서 배제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출신 인사들의 민심도 떠날 것”이라며 선거전략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아리따운 내 가슴 사랑

한국유방건강재단 AMOREPACIFIC CORPORATION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2011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일시 2011년 10월 9일(일) 오전 8:30

장소 광주 월드컵 경기장 ㉠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동시 실시

종목 10Km / 5Km

참가비 10,000원 ㉠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신청 홈페이지 접수 www.pinkcampaign.com
㉠ 홈페이지 접속 후 왼쪽 메뉴에서 '핑크리본 마라톤' 클릭
하위 메뉴 '사랑마라톤 참가신청' 클릭하여 약관 동의 후 신청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9744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스카프

후원 | 한국유방암학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청, KBS 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

협찬 | HERA, 케토름, 르까프